

국립도서관 초대 관장 이재욱에 대한 一考*

- 조선총독부도서관 기관지 『문헌보국(文獻報國)』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e Chai Wuk', the First Director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 Focused on *Munheon Boguk* published by the Library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Korea -

조혜린 (Jo, Hye-rin)**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3. 『文獻報國』을 통해 본 이재욱의 업적
2. 이재욱(李在郁)의 생애	3.1 사서로서의 업적
2.1 출생 및 학창시절	3.2 학자로서의 업적
2.2 가족 및 그의 성품	3.3 도서관 경영자로서의 업적
2.3 조선총독부도서관 시절	4. 나오는 말
2.4 해방 이후 국립도서관 시절	<참고문헌>

< 초 록 >

본 연구는 조선총독부도서관 기관지 『문헌보국(文獻報國)』을 중심으로 국립도서관 초대 관장 이재욱(李在郁)의 생애와 업적을 연구한 것이다. 연구 결과, 이재욱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서 출신 관장으로 다양한 분야의 학자이자 도서관 최고경영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음을 확인하였다.

이재욱은 1931년 경성제대 졸업 후 조선총독부도서관 촉탁(囑託)으로 들어와 1939년 사서로 임명되었으며, 『농촌도서관의 경영법』(1935년) 발간을 통해 최초의 도서관학 전문서적을 발간한 사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또한, 『문헌보국』에 수록된 총 38편의 저술 분석 결과 서지학 분야의 저술이 58%(22편)를 차지하는 등 서지학자로서의 업적과 함께 1945년 10월부터 1950년 7월 납북되기까지 국립도서관 관장으로서 그가 이룩한 업적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한 번도 조명되지 못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사서 출신 전문가 관장으로서의 이재욱이라는 인물에 대해 처음 연구한 논고로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要語: 이재욱, 조선총독부도서관, 국립도서관 초대관장, 사서 출신 도서관장, 문헌보국, 서지학자

* 이 논문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원하는 2020년도 관내 연구모임 '국립중앙도서관사 연구회' 활동에 의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한 것임.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 과장(johyerina@gmail.com)

투고일: 2020년 11월 19일 최초심사일: 2020년 12월 23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25일
서지학연구, 제84집, 279-298,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4.279>

<ABSTRACT>

This research is on the life and achievements of Lee Chai Wuk,¹⁾ the first director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focusing on the *Munheon Boguk* (文獻報國), Library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s²⁾ publicat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Lee Chai Wuk is the first library director appointed as a professional librarian in Korea and had many achievements as a scholar of various fields and library director.

After graduating Keijō Imperial University in 1931, Lee was hired by the Library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nd appointed as a librarian in 1939, he is recognized as the librarian who published the first library science book *Rural Library Management* (published in 1935).

According to the analysis for 38 articles included in *Munheon Boguk*, bibliography fields account for 58% (22 articles) of the material. The research explores his achievements as bibliographer and national library director.

This research is meaningful as it is the first study on Lee Chai Wuk, the Kore's first professional library director, and I hope this will be used as basic study on related research.

Key words: Lee Chai Wuk, Lee Chai Ook, Lee Jae-uk, Library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Korea, the Government Library of Chosen, the Library, Government-General of Chosen, the first director of national library, the first professional library director, *Munheon Boguk*, Bibliographer

1) 이재욱의 영문표기는 ① Lee Chai Ook(1946년 미군정청관보), ② Lee Chai Wuk(1946년 국립도서관에서 미군정청에 보낸 공격 서신), ③ Lee Jae-uk(2008년 배경숙 논문)으로 다양하나, 본고에서는 본인이 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서명문서 ②를 택하고, 키워드에는 모두 표시하였다.
2)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영문표기는 문헌보국에 표기된 영문표기 2종도 키워드에 함께 표시하였다.

1. 들어가는 말

해방 이후 1945년에 개관한 국립중앙도서관은 2020년 10월 15일 개관 75주년을 맞이하였다. 2019년 8월 31일에는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의 직위가 처음으로 개방형 전문가로 임명되어 국립중앙도서관 최초의 사서 출신 전문가 관장이 임용된 사례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한 사실이 있다. 국립도서관 최초의 사서 출신 전문가 관장으로 6·25 때 남북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이재욱(李在郁, 1905-1950.7. 추정) 초대 관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박봉석 부관장에 대해서는 ‘한국 도서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등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재욱 관장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이재욱의 『영남전래민요집』 연구’라는 배경숙의 박사논문(2008)과 이재욱의 저술을 모은 전3권의 『이재욱 전집』(2013), 이철교가 정리한 이재욱 선생 이력과 저작목록(2013) 정도일 뿐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한국 도서관과 문헌정보학계의 게으름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박봉석에 대한 헌사와 찬사는 넘치지만 정작 그의 사상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전집은 출간조차 되지 않았고, 『이재욱 전집』도 도서관이나 문헌정보학계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출간되었음을 비판한 것이다.¹⁾

2020년은 한국인이 건립한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중로도서관이 100주년을 맞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이다. 그동안 도서관계는 문헌정보학의 특성 상 프래그머티즘의 영향과 현장 중심의 연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도서관 현장의 역사가 깊어진 만큼 이제 도서관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심층적인 연구를 기울일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지난 6월 국립중앙도서관 직원들의 연구모임으로 결성된 ‘국립중앙도서관사 연구회’가 이재욱 초대 관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²⁾를 토대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이재욱 관장이 사서로서 첫 발을 내디뎠던 조선총독부도서관의 기관지 『문헌보국(文獻報國)』(1935-1944)을 중심으로 관내일지³⁾에 나타난 그의 활동과 수록 논고, 저작물을 분석하여 이재욱의 생애와 업적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문헌보국』 외에 배경숙의 연구 저작물,⁴⁾ 『국립중앙도서관사』(1973년) 등의 추가적인 문헌 분석을 통해 그의 생애와 업적을 규명해 보기로 한다.

1)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8512>. [접속일 2020.12.14.]

2) 총 8명의 사서(권정인, 김희순, 문민숙, 박소영, 안혜경, 윤영조, 조혜린, 최성희)로 구성, 약 5개월간(2020.7.1.~12.4.) 이재욱 관련 조사, 특히 『문헌보국』의 상세색인, 해제 및 이재욱 저술 조사와 번역을 수행하고 1차년도 결과물은 자료집으로 간행될 예정이다.

3) 문헌보국의 관내일지에는 조선총독부도서관의 각종 행사에 대한 기록은 물론, 직원들의 경조사까지 세세히 기록되어 있어 연구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예를 들면, 누가 어디로 출장을 다녀왔는지, 누가 언제 방문했는지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박봉석의 넷째아들(1살)이 사망하여 장례를 치렀다는 기록에 이르기까지 개인생활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이재욱의 활동 분석에 도움이 된다.

4) 배경숙, “이재욱의 영남전래민요집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8). ; 배경숙, 『이재욱과 『영남전래민요집』 연구』 (서울: 국학자료연구원, 2009). ; 영남민요연구회, 『이재욱 전집』 제1-제3권 (서울: 국학자료연구원, 2013).

2. 이재욱(李在郁)의 생애

2.1 출생 및 학창시절

이재욱은 1905년 9월 20일 대구에서 부친 이정희와 모친 김행이의 2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인천 이씨, 필명은 팔공산인(八公山人)⁵⁾과 르즈ㅇ, 창씨개명한 이름은 아오키 슈조(青木修三)이다. 조부 이병학(1866-1942)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인물로 대구의 부호였으며, ‘봄은 고양이로다’로 유명한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대표시인 고월(古月) 이장희(李章熙, 1900-1929)는 5살 위의 삼촌으로 같은 집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1920년 아명이었던 을복(乙福)을 재욱(在郁)으로 개명하고, 1921년 대구고등보통학교(경북고등학교의 전신)에 입학하여 1926년 제8회로 졸업하였다. 같은 해 4월 경성제국대학 개교와 함께 예과(문과 B) 입학지원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2년간의 예과 과정을 마치고 1928년 본과에 입학하였다. 법문학부 문학과에서 조선문학을 전공한 그는 3년간 30강좌를 수강하고 졸업논문으로 ‘영남민요연구’를 제출, 1931년 3월 학사시험에 합격함으로써 경성제대를 제3회로 졸업하였다.⁶⁾

당시 경성제대 입학 및 졸업생 명단은 조선총독부관보⁷⁾에 게재되고, 특히 일간지 신문에는 조선인 명단이 별도로 실릴 정도로 우수한 인재에 관심이 많았다.⁸⁾ 경성제대 조선문학 전공 졸업생으로는 1회에 조운제, 2회에 이희승, 3회에 이재욱과 김재철, 5회에 방종현과 이승녕이 있었다. 지금 우리가 들어도 생소한 인물들이 포진해 있었고, 이재욱이 졸업할 때는 영문학 전공 등 문학과 전체 졸업생이 15명에 불과하였다.

2.2 가족 및 그의 성품

이재욱은 경성제대 본과에 입학하던 1928년 배녹점과 결혼하여 장녀 정옥, 장남 정하 등 1남 5녀를 두었다. 이 중 차녀는 유아 때 만 1세의 나이(1932-1933)로 사망했다고 한다.⁹⁾

이재욱의 성품에 대해 알 수 있는 기록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그의 장남과, 경성제대 후배로서 소설가이자 문학평론가로 활동했던 조용만의 기록 정도에 불과하여 아쉽

5) 당시에는 고향의 산이나 지명을 사용하여 필명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다. 가령, 이재욱의 문학과 동기로 경성제대 국문학 교수였던 김태준은 고향 양산을 필명에 넣어 천태산인, 밀양이 고향이었던 박봉석은 재약산인, 대구가 고향이었던 이재욱은 팔공산인 등을 사용하였다.

6) 영남민요연구회(2013), 제3권, 20-21.

7) 경성제국대학 입학지원자 선발시험 합격자 명단은 조선총독부관보 1926년 4월 2일자(17면)에, 경성제대 학사시험 합격자(졸업생) 총 30명의 명단은 1931년 4월 4일자(54면)에 게재되어 있다.

8) “今春朝鮮人 新學士四十四.” 『동아일보』 (1931.3.26.2면). 졸업생 단체사진도 수록되어 있다.

9) 영남민요연구회(2013), 25-26.

기 그지 없다. 장남 이정하에 의하면, 이재욱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국내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온화하고 검소하며, 권위적이지 않은 겸허한 성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님은 온화하셨고, 긍정적이셨고 우스갯소리를 잘 하셨습니다. 저희 형제들 크는 동안 큰소리로 야단맞은 기억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어른, 특히 아버지들은 밥상을 따로 받는 것이 풍습이었는데 저희집에서는 커다란 둥근 상에서 모두 같이 앉아서 즐겁게 식사 하던 때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아버님은 그 당시 대지주의 가문에서 태어나셔서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던 부르주아의 배경을 가진 엘리트였지만 검소하시고 사치를 싫어하셨습니다.¹⁰⁾

이는 “겸허하고 독실한 학도”였으며, “성격이 변화하고 들날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겸허한 옛 선비의 「타입」¹¹⁾이었다는 조용만의 회고담과도 거의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초대 국립도서관장으로 모셔가려는 제안을 한사코 뿌리쳐 삼고초려 끝에 관장으로 부임하였다는 기록을 보아도 그의 겸손한 성품을 짐작할 수 있다.



<사진 1> 이재욱¹²⁾



<사진 2> 이재욱 가족사진¹³⁾

2.3 조선총독부도서관 시절

이재욱은 1931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촉탁(囑託)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31년에 발족한 「조선어문학회」 발기인으로 참가하여 1933년 조선어문학회 대표에 위촉되었으며, 1934년에는 「진단학회」 발기인으로 참가하는 등 학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1935년에는

10) 이재욱(2007), xii-viii.

11) 조용만, “새해에 생각나는 사람들: 이재욱형,” 『신천지』 9권 1호(1954. 1), 204.

12) <사진 1> 및 <사진 3, 4>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에서 재수록.

13) 이재욱, 『영남전래민요집』 (서울: 경인문화사, 2007), x.에서 가족사진 재수록.

단행본 『농촌도서관의 경영법』을 저술하여 전국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재욱의 경성제대 1년 후배로 해방 후 국립도서관학교 교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평론가 조용만은 이재욱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 이 형은 조선어학이 아니라 조선문학을 전공하였고 졸업하자마자 그 당시의 무서운 취직난을 돌파하고 총독부도서관에 취직하였다. 이렇게 도서관에 취직한 것이 이형의 일생의 방향을 결정한 것 같아서 그 뒤로부터 해방되기 직전에 낙향할 때까지 15, 6년을 이 한 곳에 근무하게 되었다. (중략) 이 동안에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얻게 되었고 서지학에 대한 연찬을 쌓게 되었고 조선문학에 대한 깊은 연구를 계속하게 되었다.¹⁴⁾

이처럼, 이재욱은 도서관 실무와 경영에 대한 저술뿐만 아니라 서지학에 대한 관심으로 다양한 연구발표를 통해 많은 논문을 저술하였다. 실제 수록된 자료와 다소 상이한 점은 있으나, 다음은 『문헌보국』 관내일지로 본 그의 서지학 관련 발표 기록이다.

- 1937년 이조실록의 성립에 대하여 (1937.10.2. 독서회에서 연구발표)
- 1938년 삼원(三元)에 대하여 (1938.8.6. 상식강좌)
- 1938년 규장각 개설의 연유에 대하여 (1938.12.13. 관원 연구발표)
- 1939년 방목(榜目) (1939.5.15. 상식강좌)
- 1940년 서지학상으로 본 조선 (1940.6.21. 관원 연구발표)
- 1941년 서지학에 대하여 (1941.5.5. 상식강좌)
- 1942년 동국사략에 대하여 (1942.7.14. 관원 연구발표)
- 1943년 조선 실학과와 그 문헌에 대하여 (1943.10.12. 공개 관원 연구발표)



<사진 3> 조선총독부도서관



<사진 4> 문헌보국 창간호 표지

14) 조용만(1954), 203-204.

한편, 이재욱이 조선총독부도서관 사서(司書)로 승진 발령을 받은 것은 촉탁으로 근무한 지 8년 만인 1939년 2월이었다. 이 때부터 『제5급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되었고, 같은 해 4월 1일 사서주임으로 발령을 받았다. 당시 조선총독부도서관 관제 상 사서의 정원은 4명이었는데, 통치기구 내에 조선인 등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해 온 일제가 조선인을 서열 5위 이내의 사서로 임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특히 사서주임으로 발령한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라 하겠다.

이후 1939년 일제가 제정한 조선민사령에 의해 강제로 실시된 창씨개명제도를 비껴가지는 못하듯, 그도 아오키 슈조(青木修三)라는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하였다. 문헌보국에 아오키 슈조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41년 1월호부터이다.¹⁵⁾ 이재욱이 오기야마 관장 대신 처음 관장대행 활동을 한 기록은 1939년 11월 10일로 나타난다. 1941년 5월에는 일본도서관협회 총회 참석을 위해 약 2주간의 도쿄 출장명령을 받는 등 그동안 일본인들의 전유물이다시피 했던 일본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으며, 1943년에는 춘계 체육대회에서 직원들을 인솔하는 책임자 역할도 맡게 되었다.¹⁶⁾ 이처럼, 이재욱은 와병 중인 관장을 대신하여 관장직무를 대행하다가 1945년 3월 대구로 낙향하기까지 오기야마 일본인 관장의 뒤를 잇는 서열 제2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¹⁷⁾

2.4 해방 이후 국립도서관 시절

이재욱은 1945년 10월 16일자로 미군정청으로부터 초대 국립도서관장 임명을 받았다. 그 배경에는 김재원 초대 국립박물관장과 이병도의 추천, 박봉석 등 국립도서관 직원들의 삼고초려에 걸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1950년 7월 남북되기까지 약 5년간 부관장 박봉석과 함께 새로 탄생한 국립도서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4.1 국립도서관장으로 임명되기까지¹⁸⁾

1923년 11월 30일 관제 제정으로 설립된 조선총독부도서관은 해방이 되기까지 22년 동안 일본인 관장 오기야마 히데오(荻山秀雄)의 지휘 아래 운영되고 있었다.

해방 당시 직원들은 징용과 징병 등으로 소집되어 얼마 남아있지 않아 한국인 직원들은 박봉석을 포함하여 16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8월 16일부터 장서 접수와 서고열쇠 인수, ‘도서수호문헌수집위원회’ 결성 등 박봉석을 위시한 직원들의 일사불란한 이양작업에 힘입어, 8월

15) 본관 특별도서로 『연행도폭(燕行圖幅)』을 소개하면서 青木修三를 사용하였다(제7권 제1호, 20). 박봉석도 1941년 1월호부터 와야마 히로시게(和山博重)라는 창씨 개명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6) 조선총독부도서관, “관내일지,” 『문헌보국』 제6권 1호(1940. 1), 22 ; 제7권 7호(1941. 7), 15 ; 제9권 7호(1943. 7), 7.

17)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73), 242.

18) 국립중앙도서관(1973), 238-244.

30일에는 일본인 관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이양받고, 9월 29일에는 미군정청 교화과장과 협의하여, 관명을 ‘국립도서관’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이재욱은 41세가 되던 1945년 3월에 14년간 근속해왔던 조선총독부도서관을 그만두고, 지방 문화의 발전을 위해 여생을 바치겠다며 고향인 대구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대구에서는 경상북도도청 사회교육과에서 근무하였다는 설과 학교 교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두 가지 설¹⁹⁾이 있으나 근거는 확실치 않다.

개관작업을 서두르던 박봉석 등 도서관에서는 이재욱을 관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하고, 8월 20일부터 그에게 전보와 서신 등을 보내 국립도서관의 관장으로 또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지도자가 되어 줄 것을 여러 번에 걸쳐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재욱의 계속되는 거절에 도서관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직원을 대구에 보내어 상경을 간청한 바 전 관원의 요청에 못 이겨 이재욱은 국립도서관의 관장직을 맡기로 결심하고 10월 2일 다시금 상경하였다.

이재욱이 관장으로 임명된 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초대 국립박물관장을 지낸 김재원의 자서전 『박물관과 한평생』에 의하면, 당시 초대 박물관장으로 내정된 김재원이 국립도서관장의 책임자로서 이병도의 추천을 받아 미군정청에 이재욱을 추천했다고 한다.²⁰⁾ 그리고 박봉석이 부관장이 된 연유와 일반적인 정부조직에 없는 ‘부’관장이 도서관에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문교부 敎化局의 미국인들이 도서관의 책임자를 내게 물어와 나는 李丙燾씨를 찾아갔다. 그랬더니 그는 京城帝大 朝鮮語科를 졸업한 李在郁씨를 추천하였다.

李는 대학 졸업 후 계속 도서관에 있다가 전쟁 말기에 대구에 가서 학교 교원으로 있으니 그 사람을 불러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 도서관에서 李와 같이 일하던 朴奉石은 惠化專門 卒業生이었는데 자기는 관장이 될 생각이 없으니 李를 모셔와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급히 전보를 쳐서 서울로 오라고 하였다.

원클러軍曹와 함께 李在郁을 만나보니 李의 말이 자기는 일단 도서관을 떠난 사람이라고 사양하면서 朴奉石을 관장으로 추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처음 생각했던 대로 李를 관장으로 밀어 결국 그가 관장, 朴奉石이 부관장이 되었다. 정부 직제에 ‘副’라는 것은 많지 않은데 유독 도서관에 부관장이 있게 된 것은 이러한 에피소드에서 유래한다.²¹⁾

이러한 과정 끝에 10월 3일 미군정청은 이재욱을 국립도서관의 관장으로 그리고 박봉석을 부관장으로 내정하고, 미군정청 문화복지과 원클러(Rolin E. Winkler)로부터 국립도서관 관장에 이재욱을 임명한다는 10월 5일자 공문을 접수함으로써 관장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²²⁾

19) 배경숙(2009)은 경북도청에 근무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초대 국립박물관장 김재원(2007)에 의하면 학교 교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20) 이철교는 “1945.10.06 김재원·이병도의 추천으로 군정청 문교부 교화국으로부터 국립도서관 관장에 위촉됨.”이라고 언급하였다(이철교, “이재욱 선생 이력,” 『근대서지』 7(2013. 6),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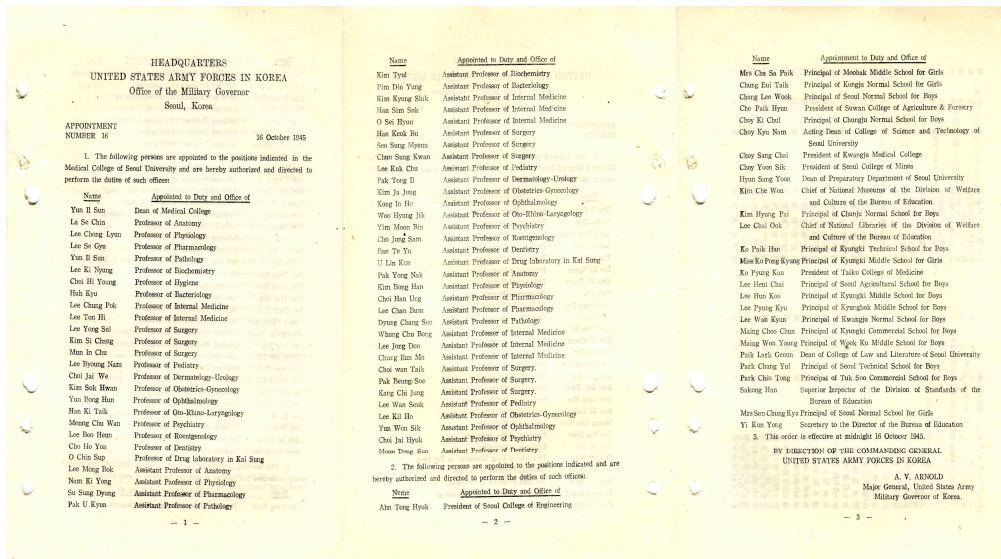
21) 김재원, 『박물관과 한평생』 (서울: 탐구당, 2007), 90-91.

22) 국립중앙도서관(1973), 243-244.

2.4.2 관장 취임 이후 납북되기까지

이재욱 관장은 10월 9일 관내 인사발령을 통해 개관 준비에 착수함으로써 해방된 지 불과 2개월 만인 1945년 10월 15일 우리 한국인의 손으로 역사적인 개관을 하게 되었다.

한편, 미군정청 학무국으로부터 10월 5일자 공문을 접수하기는 했으나, 이재욱 관장이 미군정청으로부터 관장 직함을 정식으로 받은 날짜는 1945년 10월 16일이다. 즉, 관장으로서의 공식 임기는 이 날부터 발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재원 초대 국립박물관장도 같은 날 발령을 받았다. 다음은 미군정청 관보에 게재된 인사발령 문건(발취)이다.



<국립도서관장 인사발령이 명시된 미군정청 관보(1945.10.16.)>

在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임명사령(任命辭令) 제16호

(前略) 2. 다음 각 사람의 별기(別記) 지위에 임명하고 그 직능행사의 권한을 부여함

- | | |
|-----|--------------------------|
| 氏名 | 임명 직명 |
| 안동혁 | 경성공업전문학교 교장 (中略) |
| 김재원 | 학무국 문화보존계 국립박물관장 (中略) |
| 이재욱 | 학무국 문화보존계 국립도서관장 (이하 생략) |

3. 본 영은 1945년 10월 16일 오전 0시부터 유효함
1945년 10월 16일
재조선 미국군 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발령함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에 · 예 · 아-놀드23)

개관 이후 이재욱 관장은 법제도서관에 모든 법률관계 도서를 이관해 달라는 미군정청의 요구를 여론의 환기 등을 통해 철폐시키고, 군정법령에 의해 여론국에 납본되는 도서를 국립도서관에 이관 되도록 함으로써 납본제도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조선도서관학교를 창설하는 등 약 5년간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1950년 7월 18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박봉석 부관장과 함께 46세의 나이로 북한군에 끌려간 뒤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²⁴⁾ 현재 남북 이후 북한자료에 박봉석이 등장하는데 반해, 이재욱의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상태이고,²⁵⁾ 호적 등본에 기재된 '1950년 7월 20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사망'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납북되면서 피살된 것으로 추정된다.²⁶⁾

이로써 우리나라 도서관계는 이재욱 관장과 박봉석 부관장이라는 두 거목을 잃게 되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만일 두 분이 납북되지 않았더라면 국립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서관은 훨씬 더 발전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3. 『文獻報國』을 통해 본 이재욱의 업적

『문헌보국(文獻報國)』²⁷⁾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도서관의 기관지로, 1935년 10월부터 1944년 12월까지 일본어로 발행된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소식지이다. 1935년에는 2회, 1936년에는 4회 발행되었으나, 1937년부터 1944년에 폐간되기까지 매월 발행되어 통권 제102호로 중단되었다. 본 장에서는 『문헌보국』을 중심으로 고찰하되, 『문헌보국』에 게재된 책자와 『국립중앙도서관사』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이재욱의 업적을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3.1 사서로서의 업적

이재욱은 1931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조선총독부도서관에 촉탁(囑託)으로 입직하여

23) 『미군정청 관보』(1945년 10월 16일자)는 영문판과 한글판(국한문 혼용), 일본어판의 세 가지로 동시에 게재되어 있으며, 이재욱의 영문표기는 Lee Chai Ook으로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한글판을 인용하였다.

24) 국립중앙도서관(1973), 250.

25) 백창민, 이혜숙에 의하면, 1968년 발행된 『북한총람』에 남북 이후 박봉석의 행적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박봉석(朴奉石) ▲ 전 도서관 부관장 ▲ 6.25 당시 납북 ▲ 1954년까지 인민지(人民誌) 사에서 잡부로 일함 ▲ 1958년 12월경 함경남도 북청 과수농장 노동자로 이주함.”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Gb=4&CNTN_CD=A0002558517> [접속일 2020.12.14.]

26) 영남민요연구회(2013), 24.

27) ‘문헌보국’은 문헌으로 국가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일제강점기에는 문학보국, 언론보국, 문화보국, 산업보국 등 각 방면에서 보국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용하였다. 안혜경의 ‘문헌보국 해제’(연구모임 결과물로 국립중앙도서관 간행자료에 수록 예정)에 의하면, 문헌보국은 일제강점기 하 도서관 소식과 사업, 신간서 출판문화, 독서지도, 신착도서목록 등 총독부의 도서관정책과 도서관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이며, 뿐만 아니라 조선의 문헌과 역사, 문학, 종교(특히 불교)분야 등을 포함한 당시 우리나라 문화 전반을 알 수 있는 자료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939년 2월 사서로 정식 임명을 받았다. 당시 조선총독부도서관 관제에 의하면 사서전임 직원은 4명이었으며,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사서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일본과 일제강점기의 사서자격제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1899년 ‘도서관령(圖書館令)’이 제정되면서 도서관 설치의 법적 기초가 확립되었다. ‘사서’라는 명칭은 1906년에 개정된 도서관령 제6조의 “공립도서관에 관장, 사서 및 서기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처음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 1921년에 ‘공립도서관 직원령’이 제정되고, 1933년에 개정된 동 직원령에서 “사서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가 사서자격의 하나로 명시되었다.²⁸⁾ 1935년 경성에서 개최된 전국도서관대회에서는 중요한 성과가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서검정시험을 문부성령으로 제정해 달라는 건의였다.²⁹⁾ 1936년의 문부성령 ‘공립도서관 사서검정시험규정’은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그 후속조치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의 규정에 따르면, 관장과 상급 사서직에는 관리나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의 임용이 허용되었고, 사서검정시험규정은 하위직 사서의 임용자격만을 엄격히 규정한 제도였다. 또한, 자격 시험에 불과하여 채용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별개의 제도로 시행되었다.³⁰⁾ 즉, ‘공립도서관 직원령’ 제5조제2항에 의하면, 대학시험에 합격하여 학사 호칭을 가진 자나 제국대학 졸업자는 도서관학 관련 지식이 없어도 도서관장 또는 주임관(奏任官) 사서에 임명할 수 있었으며, 그 이외의 사람은 판임관(判任官) 사서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제6조제3항에는 판임관 사서가 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사서검정시험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따라서 제국대학 졸업자이자 학사학위를 갖고 있던 이재욱은 이미 상급(주임관) 사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사서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사서로 임명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가 정식 사서로 임명된 것은 1939년 2월 28일이었다.³¹⁾ 이후 1달이 지난 4월 1일에는, 사서주임으로 승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입사한 지 8년 만에 사서로 임명되고, 사서로 임명된 지 1달 만에 사서주임으로 발탁된 데에는 사서로서의 이재욱의 능력을 높이 인정받았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문헌보국』의 관내일지를 분석하면 이재욱의 사서로서의 활동은 그다지 현저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같은 해에 입사한 동갑내기 박봉석의 경우 연구자로서의 면모가 강하면서도 도서관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조선동서분류표 사안을 발표하는데 비해, 이재욱은 현장업무에 대한 내용보다는 연구자로서의 면모가 더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사서로서 눈에 띄는 그의 역할은 일본인 관장의 뒤를 잇는 서열 제2위로서의 역할 수행(2.3 참조)

28) 岩猿敏生, 『日本圖書館史概説』(東京: アソシエーツ, 2007), 170-217.

29) 조선총독부도서관, 『문헌보국』 제1권 제2호(1935. 12), 도서관대회호 참조.

30) 조계순, “일본의 학부과정 도서관학 교육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2호(2011. 6), 231.

31) 공립도서관 사서검정시험에 합격(1939년 3월)한 박봉석도 1940년 4월 30일 사서로 승진하였다. 이보다 앞서 사서로 발령받은 사람으로 경성부립도서관 종로분관의 주임 이궁종(李肯種), 성달영(成達永)이 있다. 이궁종은 1931년에 사임하였고, 후임자인 성달영의 해방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외에, 소장자료 중 회귀자료에 대한 해설, 공개 도서관원 연구발표가 있으며, 그밖에 월요훈련, 상식 강좌, 지정강화(講話) 등에서 관내 직원 대상으로 강의한 내용을 다수 게재하거나 오늘날의 체육대회에 해당하는 원족회(遠足會) 또는 근족회(近足會)에서 직원들을 인솔했던 일들이다.

이 중 게재된 글을 보면, ‘약진 조선과 공개도서관’과 ‘최근 조선의 도서관계’, ‘도서관주간을 맞이하여’ 등 도서관 관련 저술도 있지만,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주요업적은 입직 4년째 되던 해인 1935년에 『農村圖書館의 經營法』을 한글(국한문 혼용)로 저술하여 간행한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이 단행본을 중심으로 그의 사서로서의 업적을 논하기로 한다.

『農村圖書館의 經營法』은 『문헌보국』 창간호의 판권기 지면을 특별히 할애하여 신간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은 46배판, 총 6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화 10년(1935년) 9월 10일 견지동에 위치한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당시 이재욱의 신분은 촉탁이었으며, 정가는 50전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책이었다.³²⁾ 오기야마(荻山秀雄) 관장의 한글판(국한문 혼용) 서문이 매우 이색적이다.

이재욱은 저자 서문에서 도서관사업의 부진 원인을 일반 유지의 관심 부족에 있다고 진단하고, 서적에 접할 기회가 적은 농촌사람들을 위해 농촌도서관의 창설 발전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면서 농촌의 무경험자를 대상으로 평이하고 간단하게 기술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내용은 총설, 도서관의 시설, 도서관의 일상업무, 통계, 경비와 유지문제 등 총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도서관관계 참고서, 조선 공개도서관 일람, 이명 본명 대조표 등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 일본인 관장의 찬사를 받아 1937년 5월에는 전국 주요 도서관에 기증 배포³³⁾하는 등 농촌도서관 현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되며, 입직한 지 4년밖에 안 된 사람이 농촌도서관 운영자가 도서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했다는 점이 매우 놀랍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책은 이재욱이 집필한 최초의 도서관학 단행본인 동시에 우리나라 사람이 저술한 최초의 도서관학 전문서적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3.2 학자로서의 업적

이재욱은 10년간 발행된 『문헌보국』을 통해 다대한 연구업적을 남겼다. 대학에서의 전공은 조선문학으로, 배경숙에 의하면 그는 직접 채집한 영남민요연구를 집필하여 경성제대 졸업논문으로 제출하였다고 하며, 민요학계에서는 드물게 보는 성과를 내는 등 국문학자, 민요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39년 5월 문헌보국에 발표한 ‘조선의 소설(朝鮮の小説)’도 조선문학을 전공한 국문학자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도서관에 입직한 이후에는 도서관학자, 특히 서지학자로서의 면모가 매우 강하게

32) 조선총독부도서관, 『문헌보국』 제1권 제1호(1935. 10), 60.

33) 조선총독부도서관, 『문헌보국』 제3권 제6호(1937. 6), 21.

나타난다. <표 1>은 문헌보국에 발표한 이재욱의 저술에 대한 목록이며, 이 중 서지학자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 논문은 총 38편 중 58%를 차지하는 22편(회색으로 표시)에 달한다. 특히 조선총독부도서관 소장 귀중도서 해설이 7편, 도서관에 소장된 조선의 고향자 인쇄도구에 대한 해설이 눈에 띈다.

<표 1> 『문헌보국』 내 이재욱 저술 목록³⁴⁾

기사명		권호	발행년월	페이지
원표기	번역 자료명			
躍進朝鮮と公開圖書館	약진 조선과 공개도서관	1(1)	1935.10.	7~10
朝鮮の古文獻を保存せよ*	조선의 고문헌을 보존하라(권두언)	2(2)	1936. 9.	1
本館所藏貴重圖書解説: 字訓諺解/[盧守愼著]*	본관소장 귀중도서 해설: 자훈언해/[노수신 著]	2(2)	1936. 9.	13~14
圖書館週間을當하야	도서관주간을 맞이하여	2(4)	1936.11.	6~7
李瀼を語る*	이익을 말하다	2(4)	1936.11.	7
書誌學研究特輯: 春香傳の傳本に就て*	서지학연구 특집: 춘향전의 전본에 대하여	2(4)	1936.11.	28~29, 23
本館藏書貴重圖書解説: 鳳聖功臣信城君瑋教書	본관장서 귀중도서 해설: 호성공신 신성군 후 교서	2(4)	1936.11.	41
長崎紀行	나가사키(長崎) 기행	3(10)	1937.10.	19~20
九州を旅行して	규슈(九州)를 여행하고	3(10)	1937.10.	55
李朝實錄の成立に就て	이조실록의 성립에 대하여	3(12)	1937.12.	14~35
往時京城の遊覽地	과거 경성 유람지	3(12)	1937.12.	36
農村に關心を持って	농촌에 관심을 갖고(권두언)	4(12)	1938.12.	1
奎章閣開設の緣由に就て(上)	규장각 개설의 연유에 대하여(상)	5(1)	1939. 1.	8~15
奎章閣開設の緣由に就て(下)	규장각 개설의 연유에 대하여(하)	5(2)	1939. 2.	10~17
全州府圖書館準備に參加して	전주부 도서관 준비에 참가하고	5(3)	1939. 3.	13~15
海外欄: 朝鮮の小説	해외란: 조선의 소설	5(5)	1939. 5.	26
稀書解題: 奮忠贊謨立紀靖社功臣教書*	희귀도서 해제: 분충찬모립기 정사공신 교서	6(4)	1940. 4.	6
隨想	수상록	6(4)	1940. 4.	16~17
(島崎末平)氏を悼む	시마자키 스에히라 씨를 추도하다	6(5)	1940. 5.	23
稀書解題: 清山島遊録	희귀도서 해제: 청산도유록	6(7)	1940. 7.	16
本館特別圖書紹介: 落下生稿	본관 특별도서 소개: 낙하생고(稿)	6(9)	1940. 9.	사진이면
北朝隨伴記	북선 수행기	6(11)	1940.11.	15~16
年始感	연초의 감상(권두언)	7(1)	1941. 1.	1
本館特別圖書紹介: 燕行圖幅	본관 특별도서 소개: 연행도폭	7(1)	1941. 1.	20
朝鮮の典籍に就て(1)	조선의 전적에 대하여(1)	7(2)	1941. 2.	8~10
朝鮮の典籍に就て(2)	조선의 전적에 대하여(2)	7(3)	1941. 3.	9~12
朝鮮の典籍に就て(3)	조선의 전적에 대하여(3)	7(4)	1941. 4.	7~9
朝鮮の典籍に就て(完)	조선의 전적에 대하여(완결)	7(5)	1941. 5.	7~9
常識講座: 書誌學*	상식강좌: 서지학	7(7)	1941. 7.	16~17
本館特別圖書紹介: 東人之文	본관 특별도서 소개: 동인지문	7(11)	1941.11.	권두사진
最近に於ける朝鮮の圖書館界	최근 조선의 도서관계	7(11)	1941.11.	11~12

34) ‘국립중앙도서관사 연구회’의 2020년 연구모임 결과의 번역자료목록(최성희 작성)을 토대로 미번역자료 10편(* 표시)을 추가하여 작성.

기사명		권호	발행년월	페이지
원표기	번역 자료명			
館員の心構*	관원의 각오(권두언)	8(2)	1942. 2.	1
朝鮮古活字及印刷道具一式	조선의 고풍자 및 인쇄도구 1식	8(4)	1942. 4.	권두사진이면
三臣新修東國史略に就いて(上)*	三臣(하륜·권근·이첨) 신수 동국사략에 대하여(상)	8(9)	1942. 9.	8~11
三臣新修東國史略に就いて(完)*	三臣 신수 동국사략에 대하여(완결)	8(10)	1942.10.	8~13
圖書の供出*	도서의 공출(권두언)	9(4)	1943. 4.	1
柳警遠とその隨錄	유형원과 반계수록	9(12)	1943.12.	2~4
讀書心の啓培	독서심의 함양(권두언)	10(3)	1944. 3.	1

한편, 본격적인 서지학 연구로는 ‘춘향전 전본(傳本)에 대하여’, ‘이조실록의 성립에 대하여’, ‘규장각 개설의 연유에 대하여’, ‘조선의 전적에 대하여’, ‘三臣 신수 동국사략에 대하여’, ‘유형원과 반계수록’ 등 6편이 있다. 이 연구 저작물들은 방대한 분량으로 직원들 대상 도서관원 연구에서 발표한 것을 여러 번에 걸쳐 자료로 나누어 수록한 것이다.

이 중 ‘이조실록의 성립에 대하여’는 조선왕조실록의 편수(編修), 개수(改修), 보관, 보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한 논고로서, 특히 실록을 보존하는 사고(史庫)에 대한 기술이 오늘날 국가대표도서관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특히 사마천의 『사기(史記)』 중 “藏之名山 副在京師”를 인용하여 정본(원본)은 도시나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에 두고, 부분(복본)은 서울에 두어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는 문헌보존의 기본원칙을 설교하고 있다.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이 평창에 건립 예정인 국가문헌보존관의 보존원칙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미래에 참고할 만한 통찰력이 매우 뛰어난 논고로 평가할 수 있다.³⁵⁾

또한, ‘규장각 개설의 연유에 대하여’는 정조 원년(1776)에 개설된 조선시대 왕실문고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규장각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1910년 한일합병으로 규장각 도서가 조선총독부 소관이 되고, 1930년 경성제대 부속 도서관으로 약 14만 책이 이관된 사실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일제강점기 일제의 의도적인 분산 관리정책에 대해 알 수 있게 하며, 현재 문화재청 관리 하에 서울대 법인이 위탁 운영 중인 조선 왕실문헌의 관리 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게 해주는 매우 의미있는 논고이다.³⁶⁾

이외에도 ‘조선의 전적에 대하여’는 조선 전적의 성격과 지방적 분포, 유학자들의 장서 소장현황과 전적관(觀) 등에 대해 고찰하고, 당면문제로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는 전적의 종합목록 편찬, 진본(珍本)의 영인 혹은 재판, 고문서 정리 및 보존과 이용방법의 재검토를 제시하였다. 조선시대의 문헌들을 적재적소에 인용한 박학다식함, 그리고 오늘날 제시한 해결방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현재와 거의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당면과제를 제안했다는 점에 경의를 표하며, 서지학자로서의 선구자적인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논고라 할 수 있다.

35) 국립중앙도서관사 연구회(안혜경), 『제7회 국립중앙도서관 지식력 발표자료』, 24-25.

36) 국립중앙도서관사 연구회(김희순), 『제7회 국립중앙도서관 지식력 발표자료』, 26-27.

3.3 도서관 경영자로서의 업적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일본인 관장에 이어 서열2위의 사서로 근무했던 이재욱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사서 출신 전문가로서 도서관장이 되었다. 여기서는 1945년 10월부터 1950년 7월 남북되기까지 국립도서관의 관장이자 도서관 최고경영자로서의 업적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사』(1973)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3.3.1 국립도서관의 개관 및 조직 정비

1945년 10월 1일 드디어 ‘국립도서관’ 현관을 정문에 내걸면서 본격적인 개관작업이 시작되었다. 모든 일본인 직원을 파면하고 관장에 이재욱, 부관장에 박봉석을 임명한다는 미군정청 학무국의 10월 5일자 문서를 통해 국립도서관 관리 운영체계가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이재욱 관장은 개관 준비를 위해 관장 직권으로 용원(傭員) 이하의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10월 9일에는 부관장 박봉석에게 총무부장, 사서부장 및 열람부장을 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열람부 대출과장에 이의영, 총무부 서무과장에 강춘수를 임명하였다.

박봉석 부관장 등 전 직원들이 불철주야 개관작업에 매진한 결과, 10월 15일 월요일 상오 9시 정각, 드디어 국립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이 이루어졌다. 개관 당일 국립도서관의 총 방문자수는 173명이었고 총 이용요금(유료)은 51원 10전이였다. 열람실은 총 254석으로, 일반열람실(104석), 신문열람실(40석), 대중문고(60석), 부녀자문고(50석)로 구성되어 있었다. 개관일부터 10월 31일까지 17일간의 열람자수는 3,296명으로 1일평균 219명이 이용하였다.

개관 후인 11월 6일에는 국립도서관의 직제와 기구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었다. 조직은 관장 및 부관장 아래 3부 7과로 구성되어 국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총무부에는 서무과와 회계과, 분관과, 사서부에는 동서과(東書課)와 서서과(西書課), 수서과, 열람부에는 대출과가 속해 있었다. 1945년 11월 5일 첫 월급 수령자 수로 보아 개관당시의 직원수는 34명으로 출범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³⁷⁾

3.3.2 납본제도의 기반 마련

1945년 12월 10일, 이른바 ‘법률도서 이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미군정청으로부터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법률관계 도서를 신설되는 법제도서관으로 이관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재욱 관장은 국립도서관의 사명을 설명하고 법률도서가 없는 국립도서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37) 국립중앙도서관(1973), 244-246, 264-265, 294-295.

절대 응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군정청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67호’(1946년 4월 2일)를 공포하여 ‘서적 및 예산액 배분의 법제도서관에의 이관’을 명령하였다. 이는 도서뿐만 아니라 과거 5년간의 법률도서 구입비까지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이재욱 관장은 ‘법률도서 이관 대책위원회’ 구성 및 ‘국립도서관 도서옹호협력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국민 여론에 호소함으로써 1946년 5월 8일 미군정청으로부터 해당법령이 철폐되었다는 서한을 받아 사건을 종결지었다.³⁸⁾

이는 국립도서관의 기본적 사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지도자로서의 뛰어난 전략과 리더십이 이끌어낸 승리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남본도서관으로서의 국립도서관에 대한 철학이 뿌리깊게 박혀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재욱 관장의 투철한 도서관 사상과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해방 직후의 모든 출판물은 군정법령에 의하여 여론국에 납본하고 있었다. 국립도서관에서는 여론국에 납본된 도서를 국립도서관으로 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1946년부터는 여론국에 납본된 도서를 국립도서관에 이관받게 되었다.³⁹⁾ 우리나라 납본제도는 196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는데, 이처럼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46년부터 여론국에 납본되는 도서를 이양받은 것에 기인한다. 오늘날의 납본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3.3 ‘조선도서관학교’의 창설

해방 후 국립도서관이 봉착한 최대의 문제는 전문교육을 받은 사서가 없다는 것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도서관 실무강습회가 단기로 몇 차례 개최되었을 뿐, 일본인들이 중요한 업무를 거의 도맡아 했기에 한국인 사서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이재욱 관장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차 도서관계 지도자가 될 인재를 양성할 도서관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1945년 12월 23일 미군정청에 도서관학교 설립에 대한 동의를 얻고 1946년 3월 19일에는 정식 설립인가를 받게 되었다. 3월 20일 26명의 합격자를 발표하여 1946년 4월 1일 최초의 사서양성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조선도서관학교’의 역사적인 개교식이 입학식과 동시에 거행되었다. 이재욱 관장은 식사(式辭)에서 조선도서관학교장의 자격으로 “미취학 학령아동과 8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맹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의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⁴⁰⁾

38) 국립중앙도서관(1973), 246-249.

39) 국립중앙도서관(1973), 277.

40) 개교식 및 제1기생 입학식에는 이재욱 조선도서관학교장 외에 미군정청 학무국장 대리 최승만 교화과장과 진단학회 대표 송석하 등이 참석하였다(국립도서관, 『국립도서관 관보』 제3호(1946), 1-2).

<표 2> 조선(국립)도서관학교 운영 현황

회차	교육기간	졸업생수(명)	교육기간
제1회	1946.4.1.~1946.8.31.	20	5개월
제2회	1946.9.11.~1947.8.27.	10	1년
제3회	1947.9.1.~1948.8.27.	19	1년
제4회	1948.9.10.~1949.8.10.	14	1년
제5회	1949.9.1.~1950.5.20.	14	9개월
계		77	

도서관학교는 1년 과정의 학교로 설립하였으나, 당시의 시급한 사회적 요망에 부응하기 위해 제1기생은 5개월간의 집중강의를 통해 2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매회 정원은 30명이었으나 엄격한 시험으로 인해 입학생수는 정원에 미치지 못했으며, <표 2>와 같이 1950년까지의 졸업생은 총 77명이었다. 이재욱 관장은 경성계대 등의 넓은 인맥을 충분히 활용하여 훌륭한 강사진을 구성하고 양질의 도서관학교 교육 제공을 위해 애썼으며, 박봉석 부관장과 함께 강사로 활약하기도 하였다.⁴¹⁾ 이후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도서관학교가 사라지고 만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개관 후 약 2개월 만에 미군정청으로부터 도서관학교의 설립 동의를 얻어내고, 5년간 77명의 사서자격자를 양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재욱 관장의 신속하고 냉철한 판단과 행정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설립한 조선도서관학교(정부 수립 후 ‘국립도서관학교’로 개칭)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서양성교육기관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이후 한국 사서의 산실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4. 나오는 말

본고에서는 조선총독부도서관 기관지 『문헌보국(文獻報國)』을 중심으로 조선총독부도서관 사서 이자 해방 이후 초대 국립도서관장으로서 활약한 이재욱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재욱 초대 국립도서관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서 출신 도서관 최고경영자였다. 뿐만 아니라 서지학자, 문헌정보학자, 국문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박학다식한 학자이기도 했다.

이재욱은 박봉석과 함께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의 기초를 다진 도서관계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서관계에서 전혀 연구된 적이 없었다. 그동안 문헌정보학계에서는 박봉석에만 초점을 맞추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우리 도서관계 또한 그를 한국 도서관의 아버지로서 추앙하고 있다. 심지어 국립중앙도서관에서조차 동판으로 된 흉상 제작과 전시

41) 국립중앙도서관(1973), 343-347.

를 추진하는 등 주로 박봉석만을 기리고 있다. 2005년 10월 한국도서관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이재욱에게 공포패를 수여했다는 사실이 다소 위안이 될 뿐이다.

이재욱이 국립도서관 초대 관장으로서 이루어낸 업적은 곧 해방 이후 국립도서관의 역사이다. 뿐만 아니라 제2대 도서관협회장으로서의 역할은 우리나라 도서관계 전체를 아우르는 역사이기도 하다. 그는 1950년 7월 북한에 의해 납치되어 이후 우리나라 도서관 역사에서 홀연히 사라졌다. 만일 그가 박봉석과 함께 납북되지 않고 생존해 있었다면 우리나라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는 더욱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고 감히 추측해 본다.

본고는 초대 국립도서관장 이재욱의 생애와 업적을 중심으로 고찰한 기초적인 연구로, 충분치 못한 자료 발굴에 연구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선구자에 대한 첫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욱이 친일파였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이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사실을 포함하여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들을 발굴하고 또 해방 이후 그의 도서관 활동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후일을 기약하며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73.
- 김재원. 『박물관과 한평생: 초대박물관장 자서전』. 서울: 탐구당, 2007.
- 弥吉光長先生 喜壽記念會. 『圖書館と出版文化』. 東京: 弥吉光長先生 喜壽記念會, 1977.
- 배경숙. 『이재욱과 『영남전래민요집』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2009.
- 영남민요연구회. 『이재욱 전집』 제1-제3권. 서울: 국학자료원, 2013.
- 이재욱. 『농촌도서관의 경영법』.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5.
- 이재욱. 『영남전래민요집』. 서울: 경인문화사, 2007.
- 조선총독부도서관. 『문헌보국』 제1-제10권. 경성: 조선총독부도서관, 1935-1944.

[논문(학술지)]

- “Appointment Number 16.” 『미군정청 관보』 1945. 10. 16. (1-6면).
- “今春朝鮮人 新學士四十四.” 『동아일보』. 1931. 3. 26. (2면).
- 배경숙. “이재욱의 영남전래민요집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8.
- 이철교. “이재욱 선생 이력.” “이재욱 저작목록.” 『근대서지』 7(2013. 6). 429-439.
- “입학지원자 선발시험 합격자.” 『조선총독부관보』 1926. 4. 2. (17면).

- 조용만. “새해에 생각나는 사람들: 이재욱형.” 『신천지』 제9권 1호(1954. 1). 202-204.
- 조재순. “일본의 학부과정 도서관학 교육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2호(2011. 5). 229-249.
- “학사시험합격.” 『조선총독부관보』 1931. 4. 4.(54면).

[전자정보원]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851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Gb=4&CNTN_CD=A0002558517>. [접속일 2020.12.14.]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 Gyeong-suk. 2008. *A study on Lee Jae-uk's A Collection of Yeungnam traditional folk songs*. Doctoral thesis.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 Bae, Gyeong-suk. 2009. *Study on Lee Jae-uk and traditional folk song collection of Yeungnam*. Seoul: published by Kookhak.
- Dong-A Ilbo. 1931. 3. 26. “44 Joseon people earned their bachelor's degrees this spring.” *Dong-A Ilbo* (2).
-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1926. 4. 2. “The applicants who passed the entrance exam.” *The official gazette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17).
-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1931. 4. 4. “Passing the exit examination for bachelor's degrees.” *The official gazette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54).
- Jo, Jae-soon. 2011. “Study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university-based librarianship education in Jap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2): 229-249.
- Jo, Yong-man. 1954. “people who I think of in New Year's Day: Lee Chai Wuk.” *New World*, 9(1): 202-204.
- Kim, Jae-won. 2007. *My whole life with museum: An Autobiography of the first museum director*. Seoul: published by Tamgudang.
- Lee, Chai Wuk. 1935. *Rural Library Management*. Keijo: published by Hansung Book Corporation.

- Lee, Chai Wuk. 2007. *Traditional folk song collection of Yeungnam*. Seoul: published by Kyungin Publishing Corporation.
- Lee, Cheol-gyo. 2013. "Personal history of Lee Chai Wuk." and "Bibliography of Lee Chai Wuk." *Modern Bibliography*, 7: 429-439.
- Library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Korea. 1935-1944. *Munheon Boguk [Bunken Hokoku in Japanese]*. Keijo: published by the Library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Korea.
- National Library of Korea. 1973. *History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oul: publish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U.S. Military Government Office. 1945. 10. 16. "Appointment Number 16." *The official gazette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Office* (1-6).
- Yeungnam folk song research society. 2013. *Lee Chai Wuk collected works 1-3*. Seoul: published by Kookhak.